

KIA, 리빌딩 성공 모델



문경찬



전상현



이창진

가을야구 탈락을 위안하는 소식이었다. KIA 타이거즈가 4년 만에 가을야구의 관전자로 처지가 바뀌었지만 적지 않은 결실도 있었

첫 번째는 마무리 투수 문경찬이 프리미어 12 최종 엔트리 28명에 포함됐다는 소식이었다. 올해 마무리 투수로 발탁을 받아 54경기에 출전해 1승2패24세

**마무리 투수 문경찬, 프리미어12 28명 포함
올해 54경기 1승2패24세이브 평균자책점 1.31
우완 전상현·외야수 이창진 등 신인왕 후보**

다. 시즌을 마쳐자 젊은 선수들에게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국가대표로 뽑혔고 신인왕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리빌딩이자 젊은 KIA의 발판이 되는 이들도이다.

이브, 평균자책점 1.31의 놀라운 성적을 올렸다. 마무리 투수 가운데 ERA1위를 차지했다. 필승조도 아니었던 문경찬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특유의 정교한 제구력과 적극

적인 승부가 돋보였다. 140km 초반의 구속도 후반까지 올라갔다. 삼진과 볼넷, 이닝당 출루 허용률 모두 최상의 수준이었다. 마무리 투수로 안정감이 높았다. 아킬레스건이었던 KIA의 새로운 소방수로 등극했다. 급기야 생애 첫 테크마크까지 접수해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었다.

아울러 우완 전상현과 외야수 이창진 등 신인왕 후보들이 나왔다. 두 선수는 2019 시즌 신인은 아니다. 대신 작년까지 5년 동안 60타석, 30이닝 미만의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신인 자격을 갖고 있다.

올해 투타에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고 늦깎이 신인왕에 도전하고 있다.

2016년 입단한 전상현은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해 올해 불펜의 필승조 투수로 활약했다. 57경기에 출전해 60%를 던지며 1승4패15홀드, 평균자책점 3.12의 우등 성적표를 받았다. 당당히 팀내 WAR 4위(1.26)이다. 마운드에서 피하지 않는 승부사 기질이 있다. 향후 소방수 후보는 물론 선발투수로도 잠재력을 갖추었다.

이창진은 2014년 롯데에 입단한 이후 작년까지 52타석만 소화했다. KT를 거쳐 김기태 전 감독의 눈에 띄어 작년 KIA로 이적했다. 백업요원이었으나 공수에서 출중한 기량을 과시하며 주전으로 성장했다.

올해 133경기 출전에 470타석에 들어섰다. 타율 2할7푼, 6홈런, 48타점, 8도루, 57득점의 성적을 냈다. 또 한 명의 2군 신화로 인정받았다.

이들과 함께 좌완 하준영과 내야수 박찬호도 각광을 받았다. 고졸 2년 차 하준영은 59경기에 출전해 6승2패15홀드, 평균자책점 4.9%를 기록했다. ERA가 아쉬웠으나 2년째 불펜의 핵심투수로 성장했다.

입단 6년 차를 맞은 박찬호는 도루왕(39개)에 오르며 주전 유격수를 예약했다. 올해의 히트 상품으로 두루 인정 받았다.

키움 이정후 “대표팀 경기보다 포스트시즌이 더 떨려요”

“최대한 단순하게, 하던대로 내 역할만 잘 하고자”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후(21)가 “국가대표팀 경기보다 포스트시즌이 더 긴장된다”며 떨리는 소감을 밝혔다.

이정후는 6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19 KBO리그 LG 트윈스와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 “지난해 한 번 해봤는데도 설레는 건 똑같다”며 “최대한 단순하게, 하던대로 내 역할만 잘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7년 KBO리그 1군 무대에 데뷔한 이정후는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을 경험했다.

지난 시즌 정규시즌 4위로 마친 넥센(현 키움)은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으나 이정후는 한화 이글스와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다이빙 캐치를 하다 어깨를 다쳐 중도 이탈했다.

이정후는 “지난해엔 혼자 가을야구를 빨리 끝냈다. TV로도 남은

경기를 지켜봤는데 너무 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기회가 온 만큼 준비도 잘 해두었다. 내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이정후는 지난해 11월 어깨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을 성공적으로 거쳤고 올해 정규 시즌에서 140경기를 소화하며 타율 0.336(574타수 193안타) 68타점으로 활활 날았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활약했던 이정후는 대표팀 때보다 이번 포스트시즌이 더 떨린다고 답했다.

그는 “아시안게임이나 프로 데뷔전 때보다 지금이 더 떨린다”며 “1년간 이 포스트시즌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 왔다. 오래 기다려온 만큼 긴장감도 더 크다”고 말했다.

2017년 프로 입단 동기인 LG 마무리 고우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정후는 “(고)우석씨도 이번 포스트시즌이 매우 떨릴 것”이라며 “그래도 타석에서 우석이를 만나면 꼭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황의조, 리그 2호골 작렬

보르도, 툴루즈에 3-1 승

황의조(27·지롱댕 보르도)가 프랑스 리그 시즌 2호골을 터트리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보르도는 6일 오전 3시(한국시간) 프랑스 툴루즈의 스타디움 무니시팔에서 열린 2019-20시즌 프랑스 리그1 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1로 이겼다. 황의조는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장했다.

보르도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골을 기록했다. 후반에서 한 번에 넘어온 공을 니콜라 드포레빌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이것이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되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보르도는 전반 19분 파블루 나

시멘투가 추가골까지 넣었다. 나시멘투는 프리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을 그대로 발리슛으로 연결, 추가골을 기록했다.

황의조도 전체적으로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다. 전반 42분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은 뒤 수비수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감아 차기 슈팅을 선보였지만 크로스바 위로 벗어나고 말았다. 몸을 담근 황의조는 후반 초반 득점을 성공시켰다.

황의조는 후반 8분 역습 상황에서 왼쪽 측면에서 받은 공을 그대로 오른발 인스텝 슈팅으로 연결, 툴루즈의 골망을 갈랐다. 툴루즈 베노아 코스틸 골키퍼는 황의조의



슈팅에 움직이지도 못한 채 골을 허용했다.

이날 황의조의 골은 지난 8월25일 리그 3라운드 디종과의 경기 마수같이골 이후 시즌 2호골이다.

황의조는 이후 후반 13분 페널티 박스 앞에서 또다시 중거리 슈팅을 선보였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툴루즈는 에프티미스 쿨루리스가 후반 15분 페널티 이크 정면에서 왼발 중거리슛으로 한 골을 만회했다.

하지만 이후 툴루즈는 보르도의 수비벽에 막혀 추가골을 기록하지 못했고, 보르도의 승리로 경기가 끝났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렘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렘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